

초등 지리에서 아프리카 지역 학습을 위한 수업 전략의 모색

이호욱* · 양서연**

Exploring Teaching Strategies for African Region Learning in Elementary Geography

Howook Lee* · Seoyeon Yang**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 지리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수업 전략을 모색한다.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 관념을 극복하려면, 초등학생부터 아프리카 지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프리카 지역 학습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예비교사들과 함께 수업 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 학습을 위한 수업 전략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의 사례를 조사하는 수업 전략이다. 둘째,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는 사례와 이를 반박하는 사례를 비교하는 수업 전략이다. 셋째, 주민들이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사례를 탐구하는 수업 전략이다.

주요어: 아프리카, 지역 인식, 지역 학습, 초등 지리, 수업 전략

Abstract: In this study, we explore teaching strategies that aim to enhance awareness of the African region in elementary geography. To effectively challenge the prevailing stereotype of Africa in society, it is necessary to gui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wards developing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ontinent. For this,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Africa among preservice teachers and reviewed previous studies that discussed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regional learning about Africa. In addition, after discussing lesson ideas with preservice teachers, we identified specific teaching strategies for learning the African region and proposed as follows. First, it is a teaching strategy to investigate examples of African people who excel in diverse fields. Second, it is a teaching strategy to compare cases that cause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of Africa with cases that refute them. Third, it is a teaching strategy to explore cases in which African residents attempt to solve local issues by themselves.

Key words: Africa, regional awareness, regional learning, elementary geography, teaching strategies

I. 연구 배경 및 목적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는 실사 영화 중 2023년에 개봉한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에 세

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다. 원작에서는 흰 피부와 붉은 머리를 가진 인어공주 에리얼(Ariel) 역할을 흑인 배우가 맡았기 때문이다.¹⁾ 실제로 4년 전, 배우 캐스팅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주연 배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고, 개

* 경남과학고등학교 교사(Teacher, Gyeongnam Science High School), edulhw@naver.com

** 진주교육대학교 학사과정(Undergraduate Student,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jdsus2clack@gmail.com

붕 이후에도 극찬과 혹평 사이에서 관람객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라졌다(YTN, 2023.5.25). 이와 같은 동화 속 등장인물과 인종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다고 인식되었던 고정 관념들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는 어디서든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사파리(safari)의 땅이며, 빈곤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가고, 교육과 복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전된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등의 고정 관념(stereotype)이 널리 퍼져있다(Faloyin, 2022). 이 외에도 모든 곳이 항상 덥고, 어딜 가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영화 속 부시맨처럼 흑인만 살아가고, 주민들은 문명인이 아니라 미개인이며, 원시 부족 사회가 만연하다는 등 사람들의 인식 속에 등장하는 아프리카는 실제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김유아, 20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이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우려를 낳게 한다. 학생들은 아프리카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품고 있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고, 대체로 교과서나 학습 자료 등에서도 아프리카를 부정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김다원·한진수, 2012; 김기남·김민성, 2021; Corrado, 2022).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프리카가 당연하고 있는 문제가 고질적이어서 그 해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내면화하도록 주장하고 있다(Faloyin, 2022; Robinson, 2023).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기본 가치관을 형성하는 곳이라 교육적 영향력이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결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갖추어져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eriod)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학교 교육이 아프리카의 오해와 편견을 부추겼다는 반성을 받아들여 앞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지역 학습을 추구해야 한다. 그동안 초등 지리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수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논의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 지리에서 아프리카 지역 학습을 위한 수업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육대학교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지리 강의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는 상황에 공감하고,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수업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장에서 비롯되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먼저, 예비교사들이 생각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와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학습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에 기초하여 예비교사들과 수업 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인식을 개선하는 수업 전략을 3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서 살펴본다.

II.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식 조사

1. 설문 조사의 개요

예비교사가 형성하는 인식의 수준과 내용은 미래에 가르칠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의 인식 개선을 위한 수업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다. 이를 위해 2023년 5월 중 C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

표 1. 설문 문항 소개

설문 내용	유형	비고
1.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	선택형	‘매우 좋음’ ~ ‘매우 나쁨’과 같이 5단계로 분류된 보기 제시
2.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이 낮은 원인	선택형	5개의 서술문으로 구성된 보기 제시
3. 아프리카에서 연상되는 경관 장면 서술	서술형	답변을 위한 작성 예시 제시
4. 아프리카의 후원 광고 사진에서 받은 느낌 서술	서술형	후원 광고의 사진 자료 제시
5. 아프리카의 후원 광고를 시청한 빈도	선택형	‘20회 이상’ ~ ‘본 적 없음’과 같이 5단계로 분류된 보기 제시
6. 아프리카의 기아지수가 감소하는 사실 인지	선택형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로 구성된 보기 제시
7. 아프리카에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가능성 평가	선택형	‘매우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와 같이 5단계로 분류된 보기 제시, 태양광 발전소의 사진 자료 제시

문 조사의 취지²⁾를 설명하고, 온라인 설문 조사 링크를 보내어 이에 응답한 4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소속된 심화과정은 과학교육, 사회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등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이 5개의 선택형 문항과 2개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 경관 장면, 후원 광고,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질문하는 것이다.

2. 설문 조사의 결과

1)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은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5단계로 분류된 보기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산정해 설문 결과를 분석한 값은 4.9점이었고, 세부적인 응답 내용은 ‘매우 나쁨’이 90.2%(37명), ‘나쁨’이 7.3%(3명), ‘보통’이 2.4%(1명)로 나타났다(표 2). 이어서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을 선택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40명)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5개의 서술문으로 구성된 보기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이들 중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살기 힘든 기후’를 선택한 응답이 59.6%(31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위층의 비리’가 21.2%(11명),

‘식민지화의 영향’이 13.5%(7명), ‘주민들의 낮은 지적 수준’이 5.8%(3명)로 나타났으며, ‘기타’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표 2).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이 낮은 원인을 아프리카의 기후적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 아프리카의 경관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연상되는 경관 장면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를 응답 주제와 인식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황무지, 분쟁, 저개발과 같은 부정적인 답변은 80.5%(33개), ‘자연환경과 같은 중립적인 답변은 19.5%(8개)로 나타났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다. 응답자의 답변을 돕기 위해 제시된 작성 예시의 내용에는 ‘빌딩, 설산, 전쟁, 우림, 사막, 초원, 오두막, 산, 숲, 해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중 ‘빌딩, 설산, 산, 숲, 해변’과 관련된 답변은 없었다. 그리고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이었지만, 일부에 국한된 응답이 많았다는 사실에서 다소 편향적인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3) 아프리카의 후원 광고에 대한 인식

아프리카의 후원 광고에 사용된 기아 아동의 사진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묻는 설문에서 응

표 2.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C교육대학교 1학년생들의 사례, N₁(설문 1)=41, N₂(설문 2)=40)

설문 1의 보기	빈도	비율(%)	설문 2의 보기	빈도	비율(%)
매우 좋음	0	0	아프리카의 살기 힘든 기후	31	59.6
좋음	0	0	고위층의 비리	11	21.2
보통	1	2.4	식민지화의 영향	7	13.5
나쁨	3	7.3	주민들의 낮은 지적 수준	3	5.8
매우 나쁨	37	90.2	기타	0	0
합계	41	100	합계	52	100

표 3. 아프리카의 경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C교육대학교 1학년생들의 사례, N=41)

주제	설문 3의 답변 내용	인식 유형	빈도	비율(%)
황무지	사막, 사막화되어가는 땅	부정	20	48.8
자연환경	강을 건너는 물소떼, 우림, 초원	중립	8	19.5
분쟁	전쟁, 내전	부정	7	17.1
저개발	강 옆의 작은 촌락, 오두막	부정	6	14.6
	합계		41	100

표 4. 아프리카의 후원 광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C교육대학교 1학년생들의 사례, N=41)

유형	설문 4의 답변 내용	빈도	비율(%)	설문 5의 보기	빈도	비율(%)
동정	불쌍하다, 안타깝다, 기부하고 싶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아파 보인다, 고통스러워 보인다 등	36	87.8	20회 이상	39	95.1
				10~15회	2	4.9
슬픔	슬프다	3	7.3	5~9회	0	0
관조	빈곤 포르노로 아프리카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것 같다, 몸에 비해 머리가 너무 크다	2	4.9	1~4회	0	0
				본 적 없음	0	0
합계		41	100	합계	41	100

답자 대부분은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실제로 답변한 내용 중에는 ‘불쌍하다,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먹을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부하고 싶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힘들어 보인다, 고통스러워 보인다’ 등의 표현이 많아 동정의 정서를 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후원 단체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한 모습을 강조하여 후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이겠지만, 이러한 광고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프리카는 가난한 지역’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위험이 있다. 이어서 이러한 광고를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20회 이상 시청했다’는 응답이 95.1%(39명)이고, 나머지는 ‘10~15회’로 나타났다(표 4). 아프리카의 후원 광고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것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부정적인 인식으로 굳어지게 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아프리카의 정보에 대한 인식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가 발표한 연도별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자료에 의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 42.4점에서 2022년 27.0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컨선월드와이드 한국, 2022, 13). 그러나 응답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단지 1명만이 아프리카의 기아지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안다고 했고, 나머지 97.6%(40명)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다(표 5). 그리고 모로코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 사진을 제시하고, 이 시설물이 아프리카에 입지할 가능성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가 80.5%(33명), ‘그렇지 않다’가 12.2%(5명)로 나타나서 거의 대부분이 그 가능성을 실제와 다르게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표 5).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관련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III. 아프리카 지역 학습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아프리카 지역 학습과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Hotchkiss, 1912; Kitchen,

표 5. 아프리카의 정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C교육대학교 1학년생들의 사례, N=41)

설문 6의 보기	빈도	비율(%)	설문 7의 보기	빈도	비율(%)
알고 있다	1	2.4	매우 그렇다	0	0
			그렇다	1	2.4
모르고 있다	40	97.6	보통이다	2	4.9
			그렇지 않다	5	12.2
			매우 그렇지 않다	33	80.5
합계	41	100	합계	41	100

1982; Jarosz, 1992; Myers, 2001). 여기서는 최근에 영국지리교육학회(Geographical Association)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Corrado, 2022; Faloyin and Finn, 2023; Robinson, 2023).

Corrado(2022)는 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다.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여전히 진행 중인 식민주의의 영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의미한다(Sharp 저, 이영민·박경환 역, 2011). 아프리카의 주요 산이나 호수 등을 발견한 유럽 탐험가의 이야기는 큰 주목을 받지만, 이를 지원하였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관해서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랍과 유럽의 침입이 있기 전에 존재하였던 아프리카 왕국들의 존재와 특성에 대한 역사적 관심도 부족한 편이다. 현재도 식민주의적 잔재가 경제와 문화 부문에 남아 있지만, 오늘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회복력(resilience)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전형적으로 재현(representation)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총체적인(holistic) 이해를 향하도록 수업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Corrado, 2022). 첫째,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에 발전된 모습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둘째, 사파리(safari)를 관광적 관점 대신에 생태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한다. 셋째, 아프리카의 기여와 혁신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넷째, 가상의 소통 공간에서 해외의 학생들과 학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추구한다. 다섯째,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전략을 통해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실제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이를 검증한다.

Faloyin(2022)은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장소가 품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이야기(a more comprehensive story)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 관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ed 강연에서 Adichle(2009)가 단일한 이야기(a single story)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마치 하나의 민족 및 문화의 단위처럼 취급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장소마다 삶의 이야기들이 뒤얽히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Faloyin은 아프리카에서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다룰 때, 이를 설명하는 맥락을 기

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Faloyin and Finn, 2023).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정 관념이 식민지 열강의 불법적인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대변하기 위해 고안된 신화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프리카인이 겪고 있는 도전, 갈등, 고통 등에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그 이면에 식민지화(colonisation)로 인한 피해의 결과라는 맥락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Faloyin의 논의를 분석하여 Robinson(2023)은 아프리카 지역 학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대륙 전체에 관한 이야기보다 국가 단위에 기반한 이야기(country-based narratives)는 현장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분명한 맥락을 제공해준다. 둘째,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나 자선 행사의 이면적인 영향을 지역의 실재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례로 밴드 에이드(Band Aid)의 노래 ‘Do They Know It’s Christmas?’와 Comic Relief의 자선 사업 등은 아프리카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대중적 이목을 모으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아프리카 지역 주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백인 구원자(white saviour)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Faloyin, 2022, 79, 90-91). 셋째, 아프리카를 다룬 영화 속 한 장면을 선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편향된 관점이 아닌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수업은 지역에 대한 오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곡된 고정 관념은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을 묘사하는 영화 속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Faloyin, 2022, 187-194). 넷째, 식민 지배 시기에 약탈당한 베냉(Benin), 말리(Mali) 왕국 등의 문화유산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식민지 이후 어떻게 이들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대회(African Cup of Nations) 사례 등을 통해 대륙 내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s)가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출신 학생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치가 있다.

국내에서도 지리교육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 학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를 일본, 유럽, 북미 지역에 비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부적합하거나 부정적인 사실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서 오해와 편견이 쉽게 형성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김민성, 2013; 김기남·김민성, 2021; 김이재, 2021). 김다원과 한건수(2012)는 사실과 재현의 관점에서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서술된 아프리카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설명한다.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열대 및 건조 기후로 대표되어 기후적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과도한 일반화와 단순화된 서술의 문제가 있어 사례 지역별 접근이 요구된다. 역사·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와 민족의 다양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고, 인종적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사실에 기반한 내용 구성과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부정적이며, 정형화되고, 이국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묘사되어 최신 자료를 활용해 변화를 위한 노력과 역동적인 면을 보여주고, 일상생활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연계하여 생각할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동민과 최재영(2015)은 아프리카의 기후에 대해 다중스케일적 접근(multiscalar approach)을 적용한 지역학습 활동을 구성하여 대륙 스케일에서 열대, 건조 기후만이 아니라 스케일에 따라 여러 기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경한(2016, 254-255)은 아프리카 에볼라(Ebola) 바이러스 뉴스를 통해 위치, 발생 원인, 확산 과정, 대책 등 지리적 물음을 통한 국제이해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세계지리 교육 사례를 소개한다. 조성욱(2018)은 지리적 접근 방법이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객관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데 유용함을 밝히고,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자연조건과 현재의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아프리카의 인문 조건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리교육과정을 제안한다. 성정원(2023)은 현행 세계지리 교육과정, 교과서, 평가가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하고,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기남과 성정원(2023)은 세계지리 수능 문항이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높여 주지만, 인지적 영역의 편견과 경제적 위계관계의 프레임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해서 ‘초등학교에서 아프리카

의 인식 개선을 위한 수업 아이디어를 2023년 1학기에 C 교육대학교의 ‘세계지리’ 강의에서 수강생들과 논의하였다. 강의 첫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식, 관점,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글쓰기는 주제 논의 이전에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찰하기 위한 측면과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나타난 인식의 변화를 관찰할 때, 서술된 내용을 비교 준거로 삼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이후에 수강생들에게 아프리카 지역 학습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소개하여 기존의 지역 학습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적인 수업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프리카 지역지리 강의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강의 후반부에는 한 학기 동안 수강생들이 준비해 온 수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수업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들은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종목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아프리카계 출신 운동선수들을 소개하거나,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 근거하여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하거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소식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모둠 신문이나 홍보 포스터 제작 활동,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아프리카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체험 학습, 상호 대조되는 의미를 전달하는 사진 자료의 활용, 현지 상황을 잘 반영하는 해외 기사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들이 다루어졌다. 이와 같은 수강생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업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정치, 경제, 과학, 언어,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아프리카의 인물, 사업, 운동, 정책 등을 조사해 제시하지는 논의이다. 둘째,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사실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를 반박하는 사진이나 사실을 제시하지는 논의이다. 셋째, 아프리카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노력하는

사례를 제시하지는 논의이다.

이렇게 수강생들과 논의한 내용과 앞서 살펴본 인식 조사의 결과, 그리고 관련된 선행연구의 논의를 더 발전시켜 3가지 유형의 수업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의 사례를 조사하는 수업 전략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지에 맞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방안이다. 이때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 있는 부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물 부문에 초점을 둔 것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다른 부문보다 초등학교가 직접 조사하기에 내용의 수준과 활동의 용이성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정도가 일반적으로 매우 높았으며(설문 1, 설문 3), 관련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경향이 있었다(설문 6, 설문 7). 선행연구에서도 아프리카에 대한 부적합하고 부정적인 사실에 기반한 내용 구성, 대중적 무관심 등을 지적하였으며, 아프리카의 기여와 혁신 강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 가능성 드러내기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었다(김다원·한건수, 2012; 김민성, 2013; Corrado, 2022).

둘째,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는 사례와 이를 반박하는 사례를 비교하는 수업 전략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의 서술에서 편향되어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인종적 차별과 편견 문제, 단일한 이야기의 위험성, 기후적 다양성 부족, 일반화되고 단순화된 서술 등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그 대안으로 균형있는 관점, 장소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의 가치, 대륙 전체보다는 개별 국가에 초점, 최신 자료에 기반한 내용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김다원·한건수, 2012; Corrado, 2022; Faloyin, 2022). 인식 조사에서도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이 낮은 이유를 불리한 기후적 조건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거나(설문 2), 아프리카의 경관 이해가 황무지, 분쟁, 저개발과 같이 다소 편향된 인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설문 3)에 착안하여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이’³⁾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사례를 탐구하는 수업 전략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민

주도의 해결 가능성에도 초점을 두는 방안이다. 인식 조사에서 아프리카의 후원 광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주로 동정의 정서를 가졌으며(설문 4),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화 받는다는 사실(설문 5)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를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백인 구원자의 환상이 전제하는 아프리카에 대한 절망적 담론을 반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프리카의 회복력에 대한 관심, 문제를 극복하는 역동적인 과정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김다원·한건수, 2012; Corrado, 2022; Faloyin, 2022; Robinson, 2023). 이들 전략의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V. 아프리카 지역의 인식 개선을 위한 수업 전략의 모색

1. 수업 전략 1

첫 번째 수업 전략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지에 대한 반성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인’⁴⁾의 노벨상 수상자를 조사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한 가지 전략이다. 아프리카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는 20여 명이라고 전해지는데, 주요 인물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he Nobel Prize 홈페이지).

정치 분야에서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제8대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Nelson R. Mandela)가 있다. 그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을 이끌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코피 아난(Kofi A. Annan)은 가나 국적의 외교관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성공적으로 제시하는 등 유엔에서 수행한 여러 공로로 200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사회 분야에서는 왕가리 마타이(Wangari M. Maathai)가 대표적이다. 그녀는 아프리카에 3천만 이상 그루의 나무를 심은 그린벨트 운동(Green Belt Movement)에 헌신한 케냐의 환경 운동가로서 2004년 노벨 평화상을 수

상하였다.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여성들을 치료하며 이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판지(Panzi) 병원장인 드니 무웨게(Denis Mukwege)도 2018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문학 분야에서는 소설 ‘해설자들(The Interpreters)’을 저술한 월레 소잉카(Wole Soyinka)가 나이지리아 국적의 작가로서 198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소설 ‘도적과 개들(The Thief and Dogs)’을 저술한 나기브 마푸즈(Naguib Mahfouz)도 이집트 국적의 작가로서 198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과학 분야에서는 클로드 코엔 타누지(Claude Cohen-Tannoudji)가 알제리 출신의 199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고, 아흐메드 즈웨일(Ahmed H. Zewail)은 이집트 출신의 1999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며, 시드니 브레너(Sydney Brenner)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2002년 노벨생리학·의학상 수상자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민이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일론 머스크(Elon R. Musk)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기업가로서 우주개발 회사인 스페이스X와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등을 설립한 기업인이다. 샤를리즈 테론(Charlize Theron)은 영화 ‘몬스터(Monste)’에서 열연하여 2004년 아카데미상(Academy Awards)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여배우이다(WIKIPEDIA). 코트디부아르 축구 선수인 디디에 드록바(Didier Drogba)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 FC 소속으로 시즌 득점왕에 다수 오른 인물이고, 2005년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후에 인터뷰에서 한 발언으로 자국의 내전을 중지시킨 일로 유명하다(BBC, 2020.3.31.). 프란시스 케레(D. Francis Kéré)는 아프리카에서 공공 건축물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부르

키나파소 출신의 건축가로서 2022년에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프리츠커상(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하였다(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사회의 성취기준 『6사08-04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에 따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프리카의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교육부, 2018). 이러한 수업에서는 모둠별로 조사할 인물을 분담하여 학습을 수행한 뒤에 각자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는 전략을 적용하기에 좋다. 여기에 적합한 수업 방법으로서 ‘지식시장 활동(둘 가고 둘 남기 활동)’이 있다. 이 활동은 집단탐구(Group Investigation)를 응용하여 모둠별 전체 학습에서 발표 또는 보고서 제출 대신에 박람회 형태의 전체 공유 활동으로 재구성한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조철기, 2015). 우선, 모둠별로 맡은 주제에 대해 모둠 내에서 전문적인 학습을 수행한다. 이후 모둠원 중 일부는 모둠에 남아 다른 모둠원에게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나머지 모둠원들은 다른 모둠에 가서 새로운 주제를 학습한다. 나중에 모둠 순회를 마친 구성원들이 모둠으로 돌아오면, 이번에는 남아 있었던 모둠원들이 다른 모둠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수행한다. 아프리카 지역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학습하는 수업에 지식시장 활동 전략을 적용한 세부적인 단계와 내용은 표 6과 같다.

그런데 정치,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 과학, 미술, 체육 등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들을 더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과목에 바탕을 둔 교과교육적 맥락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지역 학습은 사회과(지리)에서 주로 담당해왔지만, 지역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목에서 관련 있는 부분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면 이에 대한 학습이 보다 맥락적이고,

표 6. 아프리카 지역 학습에서의 지식시장 활동 전략

단계	내용
활동 준비	4인 1조로 모둠을 편성한 뒤, 모둠별로 조사할 아프리카 지역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명단을 배정하기
모둠 내 학습	모둠별로 맡은 주제에 대해 모둠 내에서 모둠원들과 학습하기
공유 활동 준비	모둠 내 학습의 내용을 정리한 발표 포스터를 제작하고, 발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첫 번째 순회 활동	모둠원 중 일부는 남아 발표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모둠에 가서 발표 내용을 학습하기
두 번째 순회 활동	첫 번째 순회 활동을 마친 모둠원들은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기
활동 정리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발표 포스터를 교실 내외에 전시해서 두기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지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수업에서 가르치는 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프리카 출신 인물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 수업에서 아프리카 출신 작가의 작품을, 사회 수업에서 아프리카 흑인 인권 운동가의 활동을, 과학 수업에서 아프리카 출신 과학자의 이야기를, 미술 수업에서 아프리카 출신 건축가의 조형물을, 체육 수업에서 아프리카 출신 선수의 기량 등을 다루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행사나 수업을 마련하지 않고도 평소에 수업 내용과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학습하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과목별 여러 학습 주제와 관련된 아프리카의 사례를 다루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아프리카의 인식 개선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2. 수업 전략 2

두 번째 수업 전략은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는 사례와 이를 반박하는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 서술이 부정적으로 편향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대체로 오해와 편견을 일으키는 사례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전체보다는 부분적인 한 면에 주목하거나, 본래보다 과장되게 취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오해와 편견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전체와 부분, 전통과 현대, 난관과 극복 과정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오해와 편견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면과 이를 반박하는 긍정적인 면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살펴보면, 열대 기후의 고산 가옥이나 건조 기후의 흙집, 흙벽돌집이 소개되고, 부족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사례들이 제시된다(교육부, 2019). 이것은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자칫 아프리카에는 두 기후만 나타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이동민·최재영, 2015). 그러나 한 예로 저위도에 위치한 케냐에서는 열대 기후와 건조 기후뿐만 아니라 서부 고산 지대의 영향으로 온대 기후와 한대 기후까지 나타나는 사실을 통해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Beck *et al.*, 2018). 그리고 여전히 수렵·채집 생활을 하며 전통 복장을 입고 살아가는 원주민들도 있지만, 마사이족(Maasai people) 경우에 대부분은 이미 도시에서 문명화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만 사바나 초지에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이영민, 2023, 160).

또한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가옥의 사례는 대체로 전통 가옥인 경우가 많으며, 도시보다는 촌락에서 잘 관찰된다. 이러한 전통 가옥을 위주로 다루게 되면, 아프리카에는 촌락 중심의 경관이 도시보다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 OECD의 Africapolis 자료에 의하면(OECD/SWAC 홈페이지), 2020년 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전체 도시화율은 51%이다. 이중 이집트와 모리셔스가 90%, 리비아는 82%, 가봉이 75%, 세이셸이



그림 1. 탄자니아의 마사이족 전통 촌락 경관
출처: Senses Atlas 홈페이지



그림 2. 가봉의 리브르빌(Libreville) 도시 경관
출처: The World Bank 홈페이지

74%, 남아프리카공화국이 72%로 비교적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지만, 시에라리온과 차드가 32%, 부르키나파소가 31%, 에티오피아가 25%, 마다가스카르가 22%, 부룬디가 19%, 니제르가 18%로 낮은 도시화율을 보여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특히, 아프리카의 도시화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도시 중심의 경관이 더 우세해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모습(그림 1)도 흥미롭고 가치 있는 부분이지만, 도시화되고 진보적인 모습(그림 2)을 함께 다루어 주는 것이 아프리카 지역 학습에서 필요한 균형을 추구하는 일이다 (Corrado, 2022).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분쟁과 독재의 시기를 경험했거나, 아직도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이후 사헬(Sahel) 지역에 쿠데타 벨트(Coup Belt)라고 알려진 말리, 기니, 차드, 수단,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에서 군부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실제로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연합뉴스, 2023.8.1.), 2023년 현재 적도기니에서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uema Mbasogo) 대통령이 44년째, 카메룬에서 폴 비야(Paul Biya) 대통령이 41년째, 우간다에서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K. Museveni) 대통령이 37년째 등 장기 집권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점차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부상하고 있다. 2010년 튀니

지의 재스민 혁명(Jasmin Revolution)을 시작으로, 2019년 알제리 대통령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가 5선 출마를 저지당하여 중도 사퇴하였고(연합뉴스, 2019.4.2.),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의 3선 출마를 막고 야당 출신인 펠릭스 치세케디(Felix Tshisekedi)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WIKIPEDIA). 2020년 부룬디 대통령 피에르 은쿠룬지자(Pierre Nkurunziza)와 2023년 세네갈 대통령 마키 살(Macky Sall)도 거센 저항에 부딪혀 3선 출마를 포기하는(네이버 지식백과, 연합뉴스, 2023.7.4.) 등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 학습과 관련해 초등학교 사회의 성취기준 [6사07-04] 의식주 생활에 특색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자연적, 인문적 요인을 탐구한다에 근거하여 아프리카의 생활 모습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교육부, 2018). 세부적인 수업 전략은 그림 3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 중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지와 수업 방식이 구조화되어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수업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여기서 비구조화의 의미는 학생의 반응을 최대한 허용하고,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먼저, 교사가 주도하고 구조화된 수업(I유형)에서는 교사가 학생이 가진 인식 수준과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이

교사 주도	II. 교사가 문답을 통해 학생의 생각을 파악함. 교사가 학생의 응답에 따라 반례를 제시함.	I.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학생이 이해함. 교사가 제시한 반례를 학생이 이해함.
	V. 교사가 제시한 자료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함. 교사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학생이 반례를 탐색함.	
↑		
학생 주도	IV.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함.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반례를 탐색함.	III. 학생이 수집한 자료에서 설명하는 문제를 파악함. 학생이 수집한 자료에서 제시하는 반례를 발견함.
	비구조화	구조화

그림 3. 오해와 편견을 확인하고 해소하는 수업 전략의 5가지 유형

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을 때, 교사가 자료나 반례를 제시하면, 학생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둘째, 교사가 주도하고 비구조화된 수업(II유형)에서는 교사가 문답 과정을 통해 학생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학생의 응답에 따라 적절한 반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I유형은 강의식 수업 형태이고, II유형은 문답식 수업 형태와 가깝다. 셋째, 학생이 주도하고 구조화된 수업(III유형)에서는 학생이 수집한 자료에서 문제와 반례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 유형에서는 학생이 찾은 자료가 교사의 의도에 부합한 자료인지, 문제의 도출과 반례의 제시는 논리적인지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생이 주도하고 비구조화된 수업(IV유형)에서는 학생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글, 그림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학생이 탐색하는 반례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형태는 학생의 자유도가 큰 만큼 학습 부담도 클 수 있으므로 분명한 목표 의식과 충분한 동기 부여가 학생들에게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주도하고, 반구조화된 수업(V유형)에서는 교사가 학생이 선택할 자료와 탐색할 주제를 사전에 제시하면, 학생은 그 제한된 조건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V유형은 교사의 의도와 학생의 생각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다른 유형의 장단점을 절충하는 형태이다. 이처럼 교사는 지역 학습의 목표, 내용, 방법,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5가지의 수업 유형 중에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3. 수업 전략 3

세 번째 수업 전략은 아프리카에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사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주민 주도의 해결 가능성에도 초점을 두는 방안이다.

현재 아프리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케냐, 세네갈, 모잠비크 등에서는 감소해가는 맹그로브(mangrove)를 복원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포획 가능한 푸른 탄소(blue carbon)의 양을 늘

리고자 하였다(AP, 2022.5.7.).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녹색 일자리(green jobs)의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던 모로코는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인 누르(Noor) 1~4를 건설하였다. 이 덕분에 전력의 약 절반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면서 경제적인 수혜와 더불어 기후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이코노믹 리뷰, 2019.2.8.).

아프리카 55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해 출범한 아프리카 연합(AU) 기구는 역내 안정과 영토 보전, 경제 협력, 인권 신장, 질병 퇴치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African Union 홈페이지). 이중 사헬 지대의 사막화(desertification)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 연합의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조림 사업(Great Green Wall)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쪽의 사하라 사막과 남쪽의 열대 사바나(savanna) 지역 사이에 사막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서쪽 세네갈에서부터 동쪽 지부티에 이르는 약 8,000 km의 구간에서 대규모 조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UNCCD 홈페이지).

이 외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플라스틱 퇴치 운동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05년 세계 최초로 에리트레아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이래로 르완다, 말리,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등 많은 국가에서 비닐봉지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김유아, 2021, 359-361).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금융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케냐의 엠페사(M-Pesa), 모잠비크의 엠케쉬(M-Kesh) 등 모바일머니(mobile money)를 활용한 결제, 송금,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데일리투머로우, 2016.3.14.).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개별 국가의 사정을 살펴보면(네이버 지식백과), 빈곤, 기아, 보건, 복지, 교육, 불평등, 위생, 평화 등 여러 분야에서 목표의 달성이 아직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노력하여 크고 작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

으므로 더 이상 아프리카를 동정의 대상이나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로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업 전략은 아프리카의 기여와 혁신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지역 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김다원·한건수, 2012; Corrado, 2022).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사회의 성취기준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에서 아프리카 주민들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교육부, 2018).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탐구하는 수업 모델로서 '탐구 주도 학습(enquiry-led learning)'을 수업에 도입할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에게 탐구 학습의 과정 모델과 관련된 탐구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이다(Tanner, 2021).

이 전략에서는 학생들이 탐구 주제에 대해 진정한 동기 부여를 가지게 하도록 삶에 기반한 실제 이슈들을 다루는 맥락이 중요하다(Roberts, 2013). 이를 위해 시사적인 기사문(article)을 탐구 매체로 활용하는 것은 그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기사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과 현상에 대한 시의성(timeliness)을 가지며, 자료의 신뢰성(reliability)이 일반 게시판, 블로그 유형의 글보다 높고, 학생들의 가독성(legibility) 측면에서 전문 서적이나 학술적인 글보다 우수한 장점을 보인다. 여기서 교사가 선정한 기사문을 바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관련 사례를 찾게 할 수 있지만, 교사는 도입 부분에서 주제 관련 사례만 제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적절한 기사문을 찾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취지의 수업 전략에 맞추어

탐구 주도 학습을 재구성한 단계와 내용은 표 7과 같다.

'질문하기' 단계에서는 교사가 특정 이슈에 대한 기사문이나 주제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탐구할 문제와 해결 가능성을 진단한 다음에,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구성하도록 한다. '협력하고 선택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모둠을 편성한 다음에, 모둠 내에서 탐구 활동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나간다. '수행하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적절한 기사문이나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며, 수행한 결과를 글, 그림, 그래프 등으로 정리한다. '반성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결과를 성찰한다. '공유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탐구 결과를 누구 앞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유할 것인지 결정하고 실행한다.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탐구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과 과정을 다시 검토하면서 활동 전후로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평가한다.

V. 결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왜곡된 고정 관념이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학령기부터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 지리에서 아프리카 지역 학습을 위한 수업 전략을 구체화하여 제안하였다.

표 7. 아프리카 지역 학습에서의 탐구 주도 학습 전략

단계	내용
질문하기 (Asking)	특정 이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탐구 문제와 해결 가능성을 진단하며, 학생들이 구성된 질문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협력하고 선택하기 (Collaborating and Selecting)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탐구 활동의 전반에 대해 내용과 방법을 결정한다.
수행하기 (Doing)	탐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하며, 결과를 표현한다.
반성하기 (Reflecting)	탐구 활동을 통해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성찰한다.
공유하기 (Communicating)	누구에게, 어떻게 탐구 결과를 공유할 것인지 결정한다.
평가하기 (Evaluating)	탐구 활동의 전반을 다시 검토하면서 활동 전후로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평가한다.

출처: Tanner(2021, p. 14)을 참고하여 재구성

먼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이 나쁜 원인을 기후적 조건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프리카에서 연상되는 경관 장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막화, 분쟁, 저개발처럼 부정적으로 편향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후원 광고가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었다. 대부분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수용하는 경향도 있었다.

선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학습의 문제점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대중적 무관심, 인종적 차별과 편견, 단일한 이야기의 위험성, 백인 구원자의 환상, 기후적 다양성 부족, 일반화되고 단순화된 서술의 문제, 부적합하고 부정적인 사실에 기반한 내용 구성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 지역 학습의 대안으로 아프리카의 회복력에 대한 관심, 균형있는 관점, 아프리카의 기여와 혁신 강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장소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의 가치, 대륙 전체보다는 개별 국가에 초점, 최신 자료에 기반한 내용 구성, 문제를 극복하는 역동적인 과정, 발전 가능성 드러내기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과 수업 아이디어를 논의하였고, 초등 지리에서 아프리카의 인식 개선을 위한 수업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 번째 수업 전략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지에 대한 반성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의 노벨상 수상자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사례들을 지식시장 활동 전략을 적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명의 초등교사가 여러 과목을 지도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수업마다 가르치는 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프리카 출신 인물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룰 수 있다.

두 번째 수업 전략은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는 사례와 이를 반박하는 사례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의 서술이 부정적으로 편향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아프리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열대 기후의 고상 가옥이나 건조 기후의 흙집, 흙벽돌집 등 전통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도시화되고 진보적인 모습도 균형 있게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수업 전략에는 교사와 학생 중 수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와 수업 방식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 수업 전략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하는 동시에 주민 주도의 해결 가능성에도 초점을 두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탐구 기술을 제공하는 탐구 주도 학습을 수업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전략에서는 학생들의 삶에 기반한 실제 이슈들을 다루는 맥락이 중요한데, 탐구 주제와 관련된 시사성을 갖춘 기사를 활용하는 것이 학습 활동에 유용하다.

본 연구는 초등 지리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인식 개선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 학습의 수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수업 내용의 실례와 이에 적합한 수업 방법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 학습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 수업 전략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여기서 제안된 수업 전략을 실천하고, 세부적인 수업지도안을 설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주

- 1) 주인공 인어공주 역할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할리 베일리(Halle Bailey)가 맡았다. 사회적 편견을 해결하자는 PC(political correctness) 운동, 워크 문화(woke culture) 등의 영향을 받아 영화계에서도 백인 위주의 배역을 흑인이 맡도록 하는 블랙 워싱(black washing)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YTN, 2023.5.25). 한편,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거부감도 커져서 미국에서 'awake not woke'로 대변되는 보수적인 견해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KBS 세계는 지금, 2023.4.29).
- 2) 본 설문 조사의 취지는 아프리카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수업 전략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수준과 내용을 진단하여 아프리카의 인

식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아프리카의 고정 관념을 해결하는 수업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데 유용한 참조로서 활용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 3) 이 글에서 말하는 ‘지역 주민’은 대륙, 국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마을 등으로 구분되는 행위 주체의 스케일적 차이에 따라 설정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과 집단, 부족과 종족, 국가 공동체, 지역 연합체 구성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총칭으로서, 주민을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
- 4) 이 글에서 말하는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지역 출신인 사람을 의미한다. 아프리카에서 약 1,500~2,00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아프로-아시아어족, 인도-유럽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 니알-사하라어족, 코이산어족, 니제르-콩고어족 등 6개 어족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종족 및 민족들을 모두 아프리카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과거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정착하여 스스로 아프리카너(Afrikaner)라고 부르는 백인계도 아프리카인에 포함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 교육부, 2019, 초등학교 사회 6-2 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 김다원·한건수, 2012, “‘사실’과 ‘재현’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다시 보기: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 아프리카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7(3), 440-458.
- 김기남·김민성, 2021, “세계지리 시험 문항이 추동하는 지역 편견의 문제와 대안적 문항 구성 전략”,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1), 119-132.
- 김기남·성정원, 2023, “세계지리 평가가 학생들의 지역 편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리학회지*, 12(2), 335-346.
- 김민성, 2013,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통한 지리 교과서 재구성 전략: 르완다를 사례로”, *사회과교육*, 52(2), 59-72.
- 김유아, 2021, 나의 첫 아프리카 수업, 초록비책공방.
- 김이재, 2021, “한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동남아 홀대 현상과 원인 분석: 국가주도 사회과 교육과정의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33-52.
- 성정원, 2023, “‘아프리카 자세히 들여다보기 프로젝트 수업’의 효과: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감소와 지리교과 정의적 성과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2), 89-103.
- 이경한, 2016, 사회과 지리 수업과 평가, 교육과학사.
- 이동민·최재영, 2015,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지리교육적 의의와 가능성: 초등사회과 세계지리 영역에서의 지역 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2), 1-17.
- 이영민, 2023, 지리학자의 열대 인문여행, 아날로그.
- 조성욱, 2018,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인식 변화를 위한 지리 교육과정 구성 방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1), 73-87.
- 조철기, 2015, 지리 교재 연구 및 교수법, 푸른길.
- 컨설팅월드와이드 한국, 2022, 세계기아지수: 식량시스템 변혁과 지역 거버넌스, 컨설팅월드와이드.
- Beck, H. E., Zimmermann, N. E., McVicar, T. R., Vergopolan, N., Berg, A. M., and Wood, E. F., 2018, Present and future Köppen-Geiger climate classification maps at 1-km resolution, *Scientific Data*, 5, 180214, 1-12.
- Corrado, E., 2022, Decolonising geography to unshackle the representation of Africa, *Primary Geography*, 108, 8-10.
- Faloyin, D., 2022, *Africa Is Not a Country: Breaking Stereotypes of Modern Africa*, Vintage, London.
- Faloyin, D. and Finn, M., 2023, Interview with ...: Dipo Faloyin, author of Africa Is Not A Country, *Geography*, 108(1), 25-28.
- Hotchkiss, C. W., 1912, Some points to emphasize in teaching the geography of Africa, *Journal of Geography*, 10(6), 177-184.
- Jarosz, L., 1992, Constructing the dark continent: Metaphor as geographic representation of Africa,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74(2), 105-115.
- Kitchen, H. A., 1982, Six misconceptions of Africa, *Washington Quarterly*, 5, 167-174.
- Myers, G. A., 2001, Introductory human geography textbook representations of Africa, *The Professional Geographer*, 53(4), 522-532.
- Roberts, M., 2013, *Geography Through Enquiry: Approaches to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Secondary School*, Geographical Association, Sheffield.
- Robinson, H., 2023, Africa Is Not A Country by Dipo Faloyin, *Geography*, 108(1), 29-32.
- Sharp, Joanne 저, 이영민·박경환 역, 2011, 포스트식민주주의의 지리: 권력과 재현의 공간, 여이연(Sharp, J. P., 2009, *Geographies of Postcolonialism: Spaces of Power and Representation*, SAGE Publication Ltd, London).

Tanner, J., 2021, Progression in geographical fieldwork experiences, *Primary Geography*, 104, 13-15.

[언론자료]

데일리투머로우, 2016년3월14일자, “케냐를 뒤집는 조용한 혁명 엠페사 M-PESA”,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3>, 2023년 9월 16일 접속).

연합뉴스, 2019년4월2일자, “민심에 ‘무릎’...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 “28일까지 사임””,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2003851079?input=1195m>, 2023년 9월 16일 접속).

연합뉴스, 2023년7월4일자, “세네갈 대통령 “내년 대선 출마 안 한다”...3선 도전 포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4153200099?input=1195m>, 2023년 9월 16일 접속).

연합뉴스, 2023년8월1일자, “아프리카 ‘쿠데타 벨트’”, (<https://www.yna.co.kr/view/GYH20230801001200044>, 2023년9월16일 접속).

이코노믹 리뷰, 2019년2월8일자, “여의도 10배, 모로코 세계 최대 태양열 발전소 완공”,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197>, 2023년 9월 16일 접속).

AP, 2022.5.7., Growing African mangrove forests aim to combat climate woes, (<https://apnews.com/article/climate-business-forests-kenya-senegal-55e9a9419fc3d2b9bb8bc33dae2d2174>, 2023년 9월 16일 접속).

BBC, 2020.3.31., Didier Drogba : How Ivory Coast striker helped to halt civil war in his home nation, (<https://www.bbc.com/sport/football/52072592>, 2023년 9월 16일 접속).

KBS 세계는 지금, 2023년4월29일자, “차별에 대한 미국의 워크(Woke) 논쟁, 정치권을 달구다”, (<https://youtu.be/CO2WFFViok4?si=jO93RNvS3-XQWG9Z>, 2023년 9월 20일 접속).

YTN, 2023년5월25일자, “논란의 ‘인어공주’, 극명하게 갈린 평가...개봉 후에도 설왕설래 계속”, (https://www.ytn.co.kr/_ln/0106_202305251131314155, 2023년 9월 20일 접속).

[기타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피에르 은쿠룬지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53589&cid=40942&categoryId=34320>, 2023년 9월 16일 접속).

네이버 지식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95806&cid=43667&categoryId=43667>, 2023년 9월 16일 접속).

Adichie, C. N., 2009, The danger of a single story, TED (https://www.ted.com/talks/chimamanda_ngozi_adichie_the_danger_of_a_single_story, 2023년 9월 15일 접속).

African Union, Member States (<https://au.int/>, 2023년 9월 23일 접속).

OECD/SWAC, 2020, Data tables : Level of urbanisation, Africapolis (database) (<https://www.africapolis.org/>, 2023년 9월 14일 접속).

Senses Atlas, Maasai Villages, an Architecture Designed by the Traditional Pastoral Way of Life (<https://www.sensesatlas.com/territory/maasai-villages-an-architecture-designed-by-the-traditional-pastoral-way-of-life>, 2023년 9월 19일 접속).

The Nobel Prize, Nobel Prizes & Laureates (<https://www.nobelprize.org/>, 2023년 9월 14일 접속).

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Laureates (<https://www.pritzkerprize.com/laureates/diebedo-francis-kere>, 2023년 9월 16일 접속).

The World Bank, Making Social Safety Nets a Priority in Gabon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gabon/publication/gabon-economic-update-making-social-safety-nets-a-priority-in-gabon>, 2023년 9월 19일 접속).

UNCCD, Great Green Wall (<https://www.unccd.int/our-work/ggwi>, 2023년 9월 16일 접속).

WIKIPEDIA, Charlize Theron (https://en.wikipedia.org/wiki/Charlize_Theron, 2023년 9월 16일 접속).

WIKIPEDIA, Joseph Kabila (https://en.wikipedia.org/wiki/Joseph_Kabila, 2023년 9월 16일 접속).

접 수 일 : 2023. 10. 13

수 정 일 : 2023. 11. 23

게재확정일 : 2023. 11. 24

교신: 이호욱, 52620, 경남 진주시 진의로 178-22 경남과학고등학교 교사(edulhw@naver.com, 055-759-4002)

Correspondence: Howook Lee, edulhw@naver.com